



Cambodia

호치민지사

건강한 고급주류 선호하는 캄보디아인

몸집 커져가는 캄보디아 와인시장

캄보디아 중산층 인구가 늘고 여성과 젊은 층의 주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와인시장도 함께 시장규모와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프놈펜 시내에 18개의 와인 전문매장이 있을 정도로 와인시장은 이미 안정적인 자세를 갖추었다.

| 대형유통매장의 평균 와인가격 (\$) |



AEON MALL I

10~30 (\$)



LUCKY SUPERMARKET
(SIHANOUK)

7~20 (\$)



THE WINEST

10~30 (\$)



THE WAREHOUSE WINE
MERCHANTS

8~30 (\$)

| Lucky Supermarket |



슈퍼마켓내 한쪽 섹션을 모두 차지한 와인진열대

| The Warehouse Wine Merchants |



매장에 판매중인 호주산 와인

① AEON MALL

프놈펜의 대표적인 백화점 Aeon Mall의 마트 입구에는 수입 와인 섹션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주력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공간에는 각 국가별 매대가 갖춰져 있고, 프랑스 및 호주산 와인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지만 중국산 와인까지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이 포진해 있으며 프리미엄 고가 와인의 경우, 냉장 와인셀러에 별도로 보관해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한다.

태국산 와인 · 한국산 막걸리와 함께 진열된 캄보디아산 와인은 팜 와인, 포도주 및 바나나와인 등이 있고 매장 점유율은 5%다. 태국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750mL 제품의 와인이 아닌 300mL 제품으로 5가지의 맛이 판매되고 있다.

② LUCKY SUPER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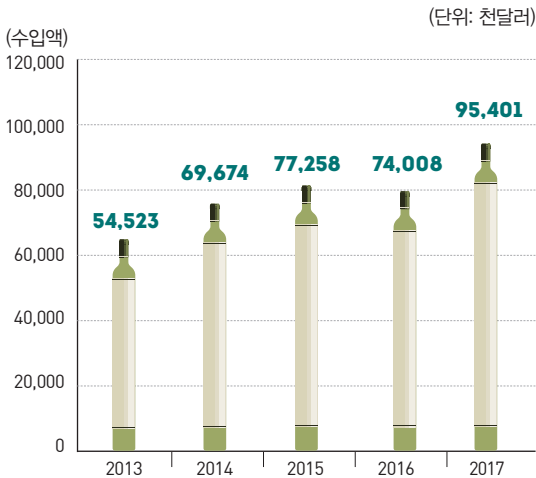
와인 매대가 전체 주류 코너의 40%를 차지하며 주로 판매되는 제품은 칠레, 호주, 프랑스, 미국산 등의 와인으로 타 유통매장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와인을 취급하고 있다.

Aeon Mall과는 다르게 수입 국가별로 매대가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단점이 아쉽다. Lucky에서도 캄보디아산 와인은 한국산 막걸리 및 일본산 사케와 함께 진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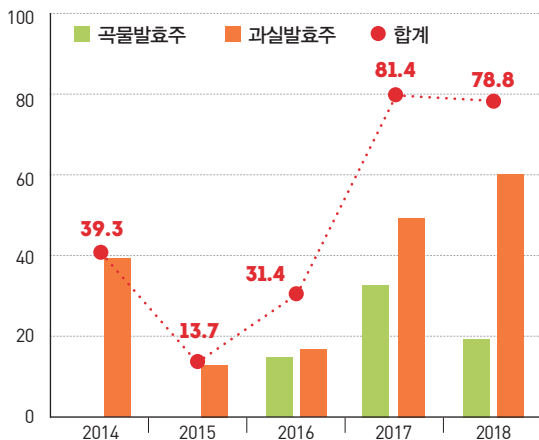
③ 독립형 와인 전문매장 THE WINEST & THE WAREHOUSE WINE MERCHANTS

주요 고객층이 캄보디아 현지인이며 판매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칠레산 와인이다. 프로모션으로 주로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해 할인 및 2+1 추가증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The Warehouse는 로드샵 매장과 Exchange Square 쇼핑몰 내에 위치한 독립매장 두 가지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형 와인 전문매장의 경우 다양한 가격대를 갖춰 최소 50달러부터 최대 2,000달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프로모션으로는 Father's Day 기념 5+1 추가증정 이벤트, 9+3 이벤트 및 시음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캄보디아 와인수입 |



| 캄보디아 한국 발효주 수입 |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한 와인 제품 현황

캄보디아 내 와인제품 수입 비중은 2017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제품이 약 12%의 점유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2% 성장률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 와인제의 뒷면 라벨에 유통채널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류는 대부분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건너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발효주 시장 현황

대형유통매장 현장조사 결과 한국 막걸리는 상온 상태로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750mL~1000mL 용량의 판매가격은 \$ 2.1 ~ 2.9(약 2,500 ~ 3,400원)로 캄보디아산 와인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다. 냉장 매대에 보관된 한국 막걸리의 경우, 맥주와 함께 진열되어 있으며 캔 형태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고 용량 350ml에 \$1.3(약 1,540원)로 같은 진열대에 진열된 캄보디아와 외국맥주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인 매장 2곳을 둘러본 결과 현지유통 매장과 같은 제품이 용량 750~1000mL, 가격은 \$2.5~2.75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상온 매대에는 와인, 냉장시설에는 맥주와 같이 진열되어 있다.

과실 발효주는 현지인이 많이 방문하는 유통 매장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한인마트의 경우, 복분자는 증류식주, 약주와 진열되어 있다. 용량 375mL에 가격은 \$9~10.29 정도이다.

Key Point

한국술의 건강함과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고급 주류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제품이 가진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하고, 제품의 건강성을 강조하기를 권한다. 또한 캄보디아 인구 대다수가 Facebook을 사용하는 만큼,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음식과의 조화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한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